

IEA, 당분간 비축유 방출 안한다!

구체적 상황 변화 없어 ... 호르무즈해협 봉쇄하면 1400만배럴 방출

국제에너지기구(IEA)가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.

IEA는 “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는 만큼 아무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”고 1월7일 발표했다.

로이터통신은 “IEA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미국, 유럽, 일본 등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1일 기준 1400만배럴 방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보도한 바 있다.

IEA는 2011년 6월 리비아 내전에 따라 국제 원유시장에 리비아산 원유 공급이 급감하자 비축유를 방출했다.

IEA는 1974년 석유파동 후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산하기구로 IE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90일 이상의 전략비축유를 보유해야 한다. <저작권자 연합 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09>